

다윗, 광야의 왕(1)

* 6/15(화) 사무엘상 ⑦ 23-24장 / 시 63, 7, 142, 54편

사무엘 1-7장	사울 8-15장	사울과 다윗 16-31장
<p>사무엘의 출생 및 성장 1-3장</p> <p>여호와와의 언약궤와 전쟁 4:1-11</p> <p>엘리 가문의 몰락 4:12-22</p> <p>언약궤의 행방 5:1-7:2a</p> <p>회개와 부흥, 에벤에셀 7:2b-14</p> <p>사사 사무엘의 활동 7:15-17</p>	<p>사무엘의 아들들 8:1-3</p> <p>이스라엘의 왕정 요구, 여호와와의 응답 8:4-22</p> <p>이스라엘의 왕 사울 9-11장</p> <p>사무엘의 고별사 12장</p> <p>사울의 통치 13-15장</p>	<p>다윗의 등장 16장</p> <p>다윗과 골리앗 17장</p> <p>다윗과 요나단 18:1-5</p> <p>▶ 사울의 폭주, 다윗의 도피 18:6-30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울의 다윗 살해 음모 ·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 아돌람 굴로 도피한 다윗 · 사울의 늑 제사장 학살 사건 · 광야로 도피한 다윗 · 엔게디 굴 사울을 살려 준 다윗 · 사무엘의 죽음 · 하길라 산 사울을 살려 준 다윗 ·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p>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31장</p>

Before 줄치며 읽기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은 권력을 위협할 만한 인물이라 다윗을 ‘판단’ 했습니다.
판단의 늪에 빠져, 멸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 있어서는 안 될 좁은 시야 : <판단의 늪>에 빠져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학살했습니다.
다윗을 보고도 밀고하지 않는 자에게 그는 자비가 없는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합니다(23:3-5).
그러나 다윗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일라 주민은
다윗을 밀고합니다. 사울의 악명이 높아진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밀고와 사울의 다윗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600여명의 다윗 일행을 체포하러 쏘다닙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23:14).”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이 다윗 수색 작전을 멈출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칼의 세력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의 수중에는 대제사장의 옷, 에봇이 있습니다(23:6).

칼을 들고 있는 사울의 손은, 무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는 그의 ‘불손’입니다.

에봇을 들고 오는 아비아달의 손은, 다윗을 구하시려는 여호와와 능하신 <손>입니다.

여호와와 손이 사울의 손을 무력화 하십니다. 그 무엇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인물이라 사울을 ‘존중’ 했습니다.

구원의 손을 만나, 선택의 기로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 없어서는 안 될 넓은 광야 : <구원의 손>을 만나

광야는 <장소의 공포>를 주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오고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피난처’라는 용어의 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장소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시 63:1).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피난처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칭합니다(시 142:5).

광야는 <시간의 공포>를 주는 곳입니다.

기약 없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고통의 끝을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속도로 일 하시는, 여호와와 주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낮선 자들이 일어나 그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그의 생명을 수색하는 동안에도,

다윗은 그의 원수의 보응을 주님께 맡깁니다(시 54:3, 7).

• <판단의 늪>에 빠지지 않게 붙드시는 <구원의 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몇 사람이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적(敵)입니다. 적을 한 칼에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그를 ‘죽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살려’ 줍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는 어째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 주실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일이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24:8-13, 메시지성경).”

다윗은 거기서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사로잡혀, 다윗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오롯이 주님을 따를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의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시 63:3, 142:3).

암갈색의 빛바랜 광야를 녹색의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여호와와 능하신 <손>을 붙드십시오!